

함평군-(주)팜한농, 스마트 농업 구현 위해 '맞손'

스마트 농업 확산 및 농축수산물 유통 협력 위한 업무협약 휴대폰 하나로 실시간 농장 환경 확인...농업 생산성 향상

함평군과 (주)팜한농이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그린바이오 기업인 (주)팜한농과 지난 24일 함평군청에서 스마트 농업 확산 및 농축수산물 유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이유진 (주)팜한농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원예 스마트팜 발전 위한 연구 개발과 농축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것

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하우스 농가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통해 측정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농장주는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하나로 온도 습도 등 실시간 농장 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병해충 예측을 통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우리 군이 스마트팜 농업의 매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신안군, 2023년 해양수산사업 조기공모 추진

계속사업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병행

신안군에서는 2023년 해양수산사업을 한 달여 앞당겨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 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해양수산사업 공모는 정부예산 정책인 조기집행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추진이 확정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진행된 사전 공개모집으로, 총 36종에 231억 원 규모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어업인은 신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방세 체납 등 개별 사업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올해 안에 서류심사와 신청된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군민이 행복한 신안", "살고싶은 섬 신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www.shina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부서 또는 신안군청 해양수산과(061-240-8402)에 문의하면 된다.

신안=이명주 기자

영암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영암군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시종 신흥지구 외 2개 지구 1,990필지(1,198천㎡)에 대해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8개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선정배경, 추진절차,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앞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

다.

그동안 군에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영암읍 망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8개 지구 4,235필지(3,435천㎡)에 대해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030년까지 영암군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활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민선8기 군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영광군, 민선8기 공약이행군민배심원단 출범

영광군은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이행군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약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이행을 위해 마련된 군민배심원단은 부서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읍면·성별을 고려하여 5대 분

야 (▲농산어촌, ▲지역경제, ▲옴부즈, ▲문화관광, ▲열린행정) 35명으로 구성했다.

군민배심원단은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 및 검토, 자문, 아이디어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12월 8~9일 신청자격 되는 업체 누구든 참여 가능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선정을 마치고,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등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목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관광·체험상품, 기념품, 목포사랑상품권, 홍어, 조기, 김, 건어물 세트(멸치 포함),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사회적 경제기업·청년기업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공급업체 선정기준 등을 심의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사업체로 답례품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는 업체라면 누구든 공모에 참여해 목포의 특색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답례품목, 신청자격, 구비서류, 평가항목 등을 공고하고 12월 8~9일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목포시청 세정과(민원동 2층)로 방문·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세정과(061-270-8618, 8658)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시는 앞으로 12월 중 목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역량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답례품 공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목포=이기성 기자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3년 연속 선정 '꽤'

무안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태양광·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특정지역의 주택과 공공·상업건물에 설치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381세대에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3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군민들의 전기요금, 가계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작년에 일로읍, 삼향읍에 409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무안읍, 몽탄면, 청계면에 453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